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11월 30일 · 제 384 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본부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글로벌 물류이슈 |

1. 옴니채널 시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더 성장시킬 것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미 서부연안 LA/LB 항, 강력한 환경개선 계획 발표
2. 유럽집행위원회, 하팍로이드와 UASC의 합병 승인
3. 폐선 위기에 직면한 선령 7년 된 컨테이너선
4. 구글과 3D로보틱스, 드론산업에서의 변화하는 행보

| 해외현지리포트 |

1. 중국의 물류성과 향상과 물류 현대화를 증진시키는 방안
2. 필리핀, 세부에 컨테이너 신항만 승인

| 공지사항 |

1. 2016 글로벌 물류기업 CEO 포럼(12/6, 롯데호텔 소공점)





글로벌 물류이슈

옴니채널 시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더 성장시킬 것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시장 규모가 연평균 10%씩 성장해 오는 2018년 2조 3,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직구) 규모는 2010년 약 2억 7,000만 달러에서 2014년 약 15억 4,000만 달러로 급증함

<주요국의 소매부분 전자상거래 매출액 '12~'17>

(단위: 십억 달러)

국가	'12	'13	'14	'15	'16	'17	CAGR(%)
미국	225.3	262.3	300.6	343.3	390.0	440.0	14.3
중국	70.9	141.6	249.4	369.7	506.3	665.1	56.5
영국	60.2	68.9	77.8	86.4	94.2	101.7	11.1
일본	77.6	70.8	77.0	83.3	89.3	95.1	4.1
독일	38.1	42.7	46.7	50.5	54.5	58.4	8.9
프랑스	30.2	34.2	38.4	46.4	46.4	50.3	10.7
캐나다	18.4	21.6	25.4	34.0	34.0	38.7	16.1
호주	18.1	19.2	20.3	22.6	22.6	23.6	5.5
러시아	12.1	14.7	17.4	20.6	20.6	21.6	12.3
한국	14.4	45.6	16.8	18.5	18.5	19.2	5.9

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eMarketer(2014), "Top 10 geographical markets in highest retail e-commerce growth".

- 이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국한되었던 유통 시장이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유통 시장인 전자상거래(E-commerce)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런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온라인 마켓 사업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옴니채널(Omni Channel) 시대

-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산으로 옴니채널(Omni Channel)¹⁾ 시대가 열렸으며, 이는 다양한 구매 채널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필요(Needs)와 욕구(Wants)가 늘어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고객의 구매 행동 변화에 따라 기존 기업의 유통 채널 전략이 옴니채널 전략²⁾으로 바뀌고 있음
- 옴니채널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 최근 발표된 유로모니터(Euromonitor)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에는 인터넷 거래의 절반 이상을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1년 전 세계 소비의 13%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중 55%를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옴니채널의 등장과 편리성(convenience)에 대한 수요 증가가 소매 업계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앞으로 소비자들은 모든 유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를 이어나갈 것이며, 이런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옴니채널 전략을 꾸준히 사용하려고 할 것임
- 또한, 2030년까지 도시 인구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편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매 환경이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 유로모니터 소매 분석가 Tim Barrett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 이상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보인 유통 채널은 할인점 및 편의점으로서,
- 이는 현대 소비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작은 식료품점을 위주로 소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간과 돈의 사용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함
 - 기술 발전을 통해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려 할 것이며,
 -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편의 제공의 한 방편으로 상품 배송 및 픽업을 위한 무인 택배함(locker station) 설치를 보급화하고 있는 추세임

1)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경로를 의미하는 채널(Channel)의 합성어로, 오프라인·인터넷·모바일 등 유통 업체가 보유한 모든 채널을 융합해 소비자들이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쇼핑 시스템임

2)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등 모든 쇼핑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고객이 하나의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전략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객 소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음



- "PackASAP"는 아르헨티나에서 전자상거래 배송을 위한 무인 택배함을 도입한 최초의 회사로서 이러한 추세는 신흥 시장을 위주로 확산되고 있음
- 이런 전망들은 최근 유로모니터가 실시한 분석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로서, 미래의 소비 및 쇼핑 환경을 보여주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대표적으로 예시된 미래의 소비 환경 중 하나가 “비 상점 (Non-store)” 으로서 이는 전자상거래 무인 택배함을 최초로 도입한 아르헨티나의 PackASAP 회사의 사례에 해당함

아르헨티나의 PackASAP 시스템

- PackASAP은 전자상거래 배송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 잠금장치 보관함으로서 무인 택배함과 비슷한 기능을 지님
 - 이 보관함은 무인 택배함과 같은 원리로 작동되지만, 물건의 거래, 지불, 예약 및 통지 등의 서비스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짐
 - PackASAP는 이 분야의 개척자로서 아르헨티나에 본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기도 함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 PackASAP 보관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용되고 있음
 - 물건 구매와 동시에 구매자 및 판매자가 공유할 수 있는 암호화된 코드가 생성됨
 - 판매자는 이 코드를 사용해 소비자의 물건을 지정된 임시 보관함에 넣어둠
 - 보관함에 물건이 도착했을 시 구매자에게 도착문자가 전송됨
 - 구매자는 암호화된 코드를 사용해 지정된 보관함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음
 -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PackASAP 택배 보관함 사용법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 이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보관함의 기능은 물류 배송자라는 중개인(Intermediary)을 없앤 개념으로서 소비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비용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류비 삭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함과 실용성(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픽업가능)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음
- 현재 이 기업은 소비자 및 기업을 위한 각각의 차별화 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에 11개의 택배 보관함 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국내 택배회사와의 특별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 80% 이상의 아르헨티나 소비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PackASAP가 도입한 택배 보관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0명중 8명이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ackASAP는 고객 만족을 경영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전자상거래 시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 유로모니터 Tim Barrett 분석가는 미래 유통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성공이라는 유리한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 : www.euromonitor.com, 2016.11.22./www.biz.chosun.com, 2016.11.28.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미 서부연안 LA/LB 항, 강력한 환경개선 계획 발표

- 미국 Los Angeles 항 및 Long Beach 항은 San Pedro Bay 항구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강화된 2017 Clean Air Action Plan(CAAP) 초안을 발표하였음
 - 11월 17일 목요일, LA/LB 항 당국자들은 이전 CAAP 계획에서 전례없는 성공을 기반으로, San Pedro Bay 내에서 항만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17 CAAP 초안을 공개하였음
 - Los Angeles 시의 Eric Garcetti 시장은 LA/LB 항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CAAP를 통해 어떻게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또한 CAAP 초안은 우리 사회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작업의 중요한 과정이며, 향후 수개월 안에 해당계획을 보완하고 도입하기 위해 Long Beach 시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Long Beach 시의 Robert Garcia시장 역시 지금까지 CAAP를 통해 보다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일자리와 무역을 더 늘린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금번 CAAP 개정으로 우리지역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2017 CAAP에 대해서 2017년 2월 17일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며 2017 봄에 CAAP 개정 최종본이 정부에 제출될 것임
- LA/LB항이 제시하는 San Pedro Bay Ports에 대한 2017 CAAP의 핵심전략은 배기가스를 거의 또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 항만트럭 및 하역장비 도입 및 관련 프로그램 확장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 계획은 또한 공급사슬 효율성 강화 및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 그리고 강화된 배출규제기준 및 친환경 장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물처리 인프라 투자확대 및 기술 혁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해당 계획은 2050년까지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배출량 대비 80% 이하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CAAP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게 되면 또 다른 주요 오염물질인 디젤입자물질(diesel particulate matter, DPM),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 황산화물(sulfur oxides, SOx)을 크게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산업계, 정부, 공동체 및 환경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된 해당 초안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부 지원책 및 규제적 접근을 통해 CAAP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음
 - 친환경 차량, 장비 기술 및 연료 적용
 - '2035년까지 항만인근 서틀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기 위해 항만트럭에 대한



- 청정엔진기준 수립 및 해당 기준에 맞는 친환경 트럭의 항만접근 우선권 부여
- 2030년까지 항만 야드장비의 배기가스 제로 달성 및 장비의 유희율 감소
- 선박감속프로그램 개선, 안벽에서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체기술 사용의 확대, 친환경 장비를 장착한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San Pedro Bay Ports에 기항하는 선사에 대한 친환경선박 도입 장려
- 보다 친환경적 엔진을 장착한 항내 선박의 도입 가속화
- 친환경 화물인프라 투자 및 계획 수립
 - 장기적으로 50% 이상의 수입화물이 철도를 이용하도록 항만 전반에 걸친 철도 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투자확대
 - 전기동력 화물취급 장비에 대한 충전기준 개발
- 화물처리 효율향상 추진
 - 터미널 운영사들이 고효율 하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녹색터미널 프로그램 개발
 - 단거리 철도, 계단식 야드, 트럭 예약시스템, 터미널 외부대기 개선, 지능형 운송시스템 등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 연구 지속
- 항내 친환경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 터미널 장비의 전기화 또는 대체에너지 사용 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 LA 항의 Energy Action Management Plan 및 LB 항의 Energy Initiative 하에서 실행 가능한 에너지 보전, 회복 및 관리 전략 지속 개발 및 적용

자료 : www.cleanairactionplan.org, 2016.11.18.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유럽집행위원회, 하팍로이드와 UASC의 합병 승인

-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세계 6위 정기선사 하팍로이드와 세계 10위 정기선사 UASC의 합병을 승인함
 - 독일 함부르크에 기반을 둔 하팍로이드와 두바이에 기반을 둔 UASC의 합병 계획은 2016년 4월 공식화되었으며, 하팍로이드가 UASC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됨
 - 하팍로이드에 의한 UASC 인수 절차는 2016년 8월말 완료되었으며, 그 직후 양사는 유럽위원회에 합병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황이었음
 - 이번 합병 승인으로 하팍로이드는 1백60만 TEU 규모의 선대능력을 확보하며, 에버그린을 제치고 세계 5위의 정기선사로 뛰어오르게 됨
- 이번 합병 승인 심사의 최대 관건은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북유럽-북미 정기선 시장 경쟁체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음
 -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유럽-남/북미, 중동, 인도,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프리카서부 및 북유럽-지중해 등 전체 13개 세계 무역루트에서의 시장 경쟁체제 영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음
 - 특히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하팍로이드가 소속된 해운 얼라이언스인 “The Alliance” 및 하팍로이드와 UASC가 구성한 기존 컨소시엄에 의해 주도되어온 북유럽-북미 무역노선에 새로운 반경쟁적 정기선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짐
 - * 양사는 이미 해당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양사 합병은 해당 시장의 운송 능력과 가격 등에 영향을 끼쳐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대두됐음
 - 또 다른 관건은 정기선 서비스와 컨테이너 터미널, 내륙 운송, 화물 주선, 부두 예인 서비스 등 부대 서비스간 수직적 연계의 제한 가능성 등이었음
- 이 같은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 하팍로이드측은 북유럽-북미 노선에서 UASC와 맺었던 컨소시엄 관계를 완전히 끊는 한편, 합병후 북유럽-미국동안 서비스(“NEU1 서비스”로 약칭)에서 UASC를 완전히 철수시키는 보완조치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짐
 - 하팍로이드는 또한 경쟁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조치의 결과로 자사의 북유럽-북미 노선 시장 점유율이 현재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로이즈리스트는 보도함
 - 하팍로이드의 이와 같은 보완 조치 결과, 유럽위원회는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불식됐다고 판단하고 양사 합병 건을 승인했음
- 이번 하팍로이드-UASC 합병승인은 NYK, MOL 및 K라인 등 일본계 선사들의 합병발표에 이은 것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최근 세계 최대 해운얼라이언스 2M 가입이 불투명해진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선사들의 인수합병 시도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자료 : www.lloydwslist.com 2016. 11. 24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폐선 위기에 직면한 선령 7년 된 컨테이너선

- Rickmers Maritime은 최근 3년 동안 폐선 매각된 선박 중 선령이 가장 낮은 7년 된 컨테이너선을 폐선 매각하기 위해 검토 중
 -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선주는 2009년에 건조된 Rickmers India(4,250 TEU)를 처분했다고 발표했지만 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폐선 매각을 고려 중
 - 온라인 선박평가 분석 사이트인 vesselsvalue.com에 따르면 한진 뉴포트라는 이름으로 항해했던 해당 선박의 가격은 590만 달러임
 - Rickmers India의 잠재적인 매각 소식은 그리스 선주 Diana Containerships가 선령 10년 된 YM Los Angeles(5,500 TEU)를 669만 달러에 폐선 매각한 지 불과 3주 만에 나온 것임
 - 최근 30년 동안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은 선박 중 폐선 처리된 선령 10년 이하 컨테이너 선박은 폴란드 Stocznia Gdansk 조선소에서 건조된 Viktoria Wulff(4,546 TEU)으로 지난 9월 폐선 처리됨
- 상대적으로 선령이 낮은 선박의 폐선 매각은 13,500 TEU급 선박의 통항이 가능토록 확장된 파나마 운하의 개장(2016.6)에 따른 기존 파나마급(4,000~5,100 TEU) 선박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여 줌
 - vesselsvalue.com에 따르면 Rickmers India의 가치는 올해 파나마급 선박의 용선 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반영되어 62% 급락함
 - Alphaliner에 따르면, 현재 파나마급(4,000~5,100 TEU) 선박 79척이 용선을 모색 중이며, 몇 주내에 반선 선박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새로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폐선 매각이 이 분야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선령이 더 낮은 선박도 폐선 매각될 것으로 예상
- 파나마급 선박의 1일 용선료는 2015년 초 약 15,000 달러였으나, 최근 4,250~4,750 달러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
 - 올해 10개월 동안 폐선 매각된 전체 선박은 144척(488,000 TEU 이상)이며, 그 중 40척이 파나마급 선박임
 - Rickmers Maritime의 파나마급 선박 16척 중 5척은 유훈상태이며 6척은 단기용선, 5척은 장기용선된 상태로 파나마급 선대 위기의 최전선 피해자임
 - Rickmers Maritime은 금주 7,000만 달러의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의 최종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주식거래를 중단하고 우려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

자료 : www.joc.com, 2016.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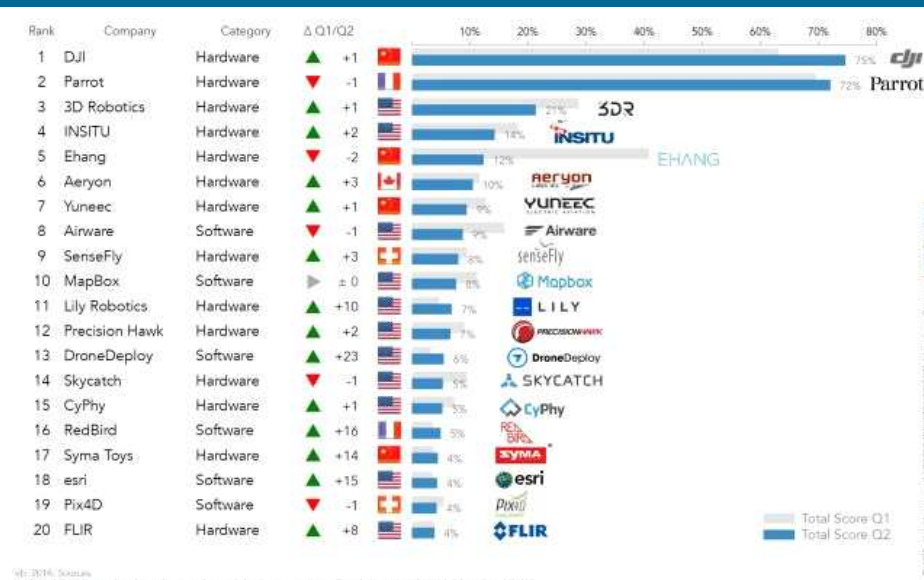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



구글과 3D로보틱스, 드론산업에서의 변화하는 행보

- 드론 산업을 이끌던 핵심 기업이었던 구글과 3D로보틱스가 드론 산업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드론 산업은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드론 업체들이 생겨났음
-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 리서치 연구소인 프로젝트윙(Project Wing)은 드론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유통기업 아마존과 함께 드론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었음
 -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프로젝트윙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며, 프로젝트를 이끌던 데이브 보스(Dave Vos)는 10월 회사를 떠남
- 3D로보틱스(3DRobotics)는 10월 드론 하드웨어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3D로보틱스는 2016년 2분기 드론업계에서 3위를 차지한 회사임
 - 솔로 드론 생산에 과도한 자금 투입, 잘못된 수요예측, 판매부진이 실패의 이유로 예상됨

2016년 2분기 드론업계 순위



자료 : www.logisb.su

- 지프라인(Zipline)은 2500만 달러 규모의 펀딩을 달성했으며, 도미노는 18일 뉴질랜드에서 드론으로 피자 배달에 성공함
- 그럼에도 구글이 드론 산업에서 발을 빼는 모습과 업계 3위를 차지하던 3D로보틱스의 커다란 전략 변화는 국내 드론 업계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음

자료 : www.droneii.com, 2016.11.20.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해외현지리포트

중국의 물류성과 향상과 물류 현대화를 증진시키는 방안

- 물류성과(logistics performance)는 경제 성장을 유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증대 시키는 데 중요함
 - 여러 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발전을 위한 물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비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은 사회 전반에 걸쳐 운송비와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중국의 산업과 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함
 - 향후, 중국물류시장은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유지할 것이며, 물류시장의 세분화는 물류 성과의 빠른 증진을 요하게 될 것임
 - 이에 중국 물류 성과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임
 - 비록 중국 물류 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낮은 성과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아 있음
- 중국의 물류성과는 선진국들의 물류성과에 비해 갈 길이 먼 상태임
 - 중국의 물류비용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총 생산 비용에서도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상황임
 - 중국의 물류시장 공급은 빠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물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중국은 200여개 이상의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물류 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의 국제물류는 다소 약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상황임
 -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중국의 발전 패턴에 대한 주요 개혁 및 경제 구조에 대한 주요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물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반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물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

자료: www.chinadaily.com.cn 2016.11.22.



필리핀, 세부에 컨테이너 신항만 승인

- 필리핀은 세부(Cebu)에 1억 8,6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 컨테이너 항만 건설을 승인함
 - 2020년에 컨테이너항만이 완공되면, 세부에 위치하고 있는 항만은 벌크화물 전용 항만으로 변경될 예정임
 -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에 의해 이번주 초 승인을 받은 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임
 - 콘솔라시온 시정부(municipal government of Consolacion)가 항만 입지에 165억 페소(peso)를 들여 항만을 건설하는데 별도의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한 이후, 이 프로젝트는 논란이 되고 있음
 - 현재 항만 입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전 문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세부 항만공사 Edmund Tan 국장은, 항만건설 프로젝트가 국가경제개발청에 의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항만 건설은 추진될 것이며, 세부적인 엔지니어링 설계와 사전 작업 및 입찰이 완료된 이후, 2017년 3/4분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세부에 건설되는 컨테이너 신항만은 2020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에 있음
 - 신항만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은 필리핀과 한국에 의해 지원되며, 기존 항만 시설에서는 벌크 화물을 처리하고, 신항만에서는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처리할 예정임
 - 컨테이너 신항만은 Barangay Tayud 지역에 12 헥타르 규모로 건설될 예정임
 - 북쪽의 릴로안(Liloan) 지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과 기존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남부 지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도 승인을 받은 상황임

자료: www.joc.com 2016.11.17.

신성호 해외현지 에이전트
oxygen0070@gmail.com



2016 글로벌 물류기업 CEO 포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6 글로벌 물류기업 CEO 포럼’을 개최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07:00~10:00(조찬, 세미나)
- 장소 : 롯데호텔 소공점 에메랄드룸(2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호텔서울
TEL : +82-2-771-1000

지하철 이용안내

2호선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도보 1분)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도보 10~15분)

버스 이용안내

지선(초록) : 7017, 7021
간선(파랑) : 100, 143, 151, 152, 202,
261, 262, 405, 501, 701,
702A, 702B, 705

- 주최 : 글로벌물류기업 CEO포럼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 프로그램

순서	시간	내용
1부(개회식)		
등록 및 조찬	07:00~07:25	
인사말씀	07:25~07:40	-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김병진 한국국제물류협회장 - 박재익 한국통합물류협회장
2부(기념세미나)		
주제발표 1	07:40~08:20	초연결 시대, 파괴적 혁신에 대응하는 물류기업의 성공조건: 담대한 협력 - 인천대학교 송상화 교수
주제발표 2	08:20~09:00	베트남 물류시장, 성장과 기회 - 유수로지스틱스 천석범 전무
토론	09:00~09:30	- 사회 : 이성우 본부장
폐회 및 정리	09:30~	- 최종 정리 및 폐회



- 접수처 : E-mail (sunmikang@kmi.re.kr / joohye915@kmi.re.kr)
- 신청기한: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최대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 참가문의 : 강선미 연구원(051-797-4776, sunmikang@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 기타 : ① 소식 제공 예정
② 담당자연락처는 상시 연락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016 글로벌 물류기업 CEO 포럼』 참가신청서

-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07:00~10:00
- 장소 : 롯데호텔 소공점 에메랄드룸(2층)
- 주최 : 글로벌 물류기업 CEO포럼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회 사 명	
-------	--

참가자 1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참가자 2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 참고 사항

- 신청인원 : 1기업당 최대 2명
- 신청기한 :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최대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 접 수 처 : E-mail (sunmikang@kmi.re.kr / joohye915@kmi.re.kr)
- 문 의 :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강선미 연구원 Tel.051-797-4776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주혜 연구원 Tel.051-797-4779
- 기 타 : ① 조식 제공 예정
② 담당자연락처는 상시 연락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